

# 조선시대 교량의 문화경관 해석: 연결, 교감, 상징

문지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 I. 서론

### 1. 연구배경, 목적 및 의의

한국은 지형적으로 산이 많다. 그리고 계곡, 하천, 강 등의 물길이 곳곳에 형성되어 있어, 이들 물길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필요했다. 교량은 끊어진 두 지점을 빠르고 안전하게 이어준다. 그러나 한국의 옛 교량은 복합적으로 쓰였는데, 시대의 예술작품, 조상들의 정신세계의 반영물, 일상생활의 장소로도 언급되었다. 그러나 근대산업발전 이후의 교량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교량의 문화경관을 해석하는 것”이다. 즉, 교량을 문화경관적 측면에서 새롭게 해석한다. 이는 한국의 옛 교량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형태적 특징 등 물리적·공학적 측면에서의 선행연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조선시대 교량의 문화경관 해석을 위한 연구의 틀을 새롭게 정립하였는데, 물리적 특징, 생활 속에서의 활동, 문화적 의미로 구분하여 포괄적·입체적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교량의 세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역사기록 및 회화와 시 등에 이르기까지 교량에 나타난 다양한 활동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교량의 고유한 속성과 가치를 알리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량설계가 지나치게 기능적이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 2. 연구사

한국전통교량을 대상으로 한 학위논문으로는 이재원(1975)의 ‘이씨 조선시대의 교량에 관한 연구’, 박종성(1988)의 ‘전통경관 구성요소로서의 조선시대 교량에 관한 연구: 한양을 중심으로’, 김근섭(1991)의 ‘한국 전통 교량의 건설기술 변천에 관한 연구’, 손영식(1992)의 ‘한국 고 교량의 구조형식에 관한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내용의 대부분은 교량의 구조, 형식, 형태, 재료, 시공기술, 수치해석과 같은 물리적 특징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교량의 가설 배경, 장식문양, 전설 등 문화적·조형적 측면이 부분적으로 언급되었다.

문화경관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특정 공간과 장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는데, 특정 대상의 문화경관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특정 매체를 통한 연구대상의 문화경관 연구로 구분되었

다. 전자의 연구로는 김수진 등(2010)의 ‘전통마을 공동체 공간의 문화경관 해석’, 김성균(1993)의 ‘하회 마을의 문화경관’, 이석해 등(2001)의 ‘문화경관으로 본 곡운구곡의 특성’ 등이 있으며, 후자의 연구로는 서영애와 조경진(2008)의 ‘영화에 나타난 센트럴파크의 문화경관 해석: 우디 앨런 영화를 중심으로’, 정기호(2008)의 ‘영상자료를 활용한 문화경관 변천에 관한 기초연구: 1945~1980년간의 서울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문화경관 연구는 대부분 외형과 내적 의미 및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찰했으며, 자료의 분석과 함께 현장답사 및 인터뷰를 수행한 경우가 많았고, 그림, 시, 이야기 등의 역사·문화자료 혹은 신기술 매체를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 II. 이론적 고찰

본 연구를 위해서는 ‘교량’과 ‘문화경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량의 정의를 통해 본 교량의 기원은 목재로부터 출발하였다. 양 안을 잇고 사람이 건너는 것에서부터 교량의 개념적 발전은 시작되었는데, 높은 곳에 위치하여 위엄 있고 우뚝 솟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교량의 크기 또한 커지면서 굳건하게 되었고, 가설기술이 발달하여 이동이 빨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교량은 그 자체로써 훌륭함을 상징하게 되었다. 동·서양 역사 속에서 교량은 주로 연결의 수단으로 쓰였다. 그리고 당시대의 기술력을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조형적·예술적인 대상으로 생각되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교량건설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도하게 되었다. 또한 교량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있었으며, 전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량은 일반 서민들에게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 삶의 장소였다. 과거 교량은 자연 속, 특히 수경에 놓여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다. 또한 교량은 종교적, 정신적 역할을 겸했으며, 전설, 신화, 민담, 문학, 회화 등의 소재로도 빈번하게 등장했다. 그리고 시대의 높은 사회적 가치와 위상의 상징물로 교량이 언급되기도 했다. 문화경관은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문화활동, 즉 삶의 영위 결과로 생성 및 분화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문화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물리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문화경관은 특정 집단의 보편성과 다양성·특수성·개별성을 동시에 갖는다. 문화경관 연구의

대상은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다양성을 갖는 정체성을 지닌 대상체로서, 노베르크 슐츠(1971: 19)와 에드워드 렐프(2005: 103, 104)가 언급한 '장소'의 개념과도 많은 부분 일치했다. 문화지리학자들은 대부분 땅·지역과 같은 영역을 문화경관 연구의 대상으로 여겼다. 이외에 특정 경관지점, 건조물(건축물 포함) 등도 문화경관 연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특정 시대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문화경관은 당 시대의 문화가 존재했던 곳에서의 기록,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 보존이 양호한 유적과 유물 등의 연구를 통해 유추할 수 있었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조선시대 교량의 문화경관적 해석'이다. 조선시대의 교량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된 이유는 조선시대 이후의 교량에서 한국의 전통성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황학주(1976: 93)는 20세기를 전후로 한국 교량의 특징이 구분되었으며, 20세기 이전 시기에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전통적인 교량이 가설되었고, 그 이후에는 서양문물의 전래와 일제식민정치로 인해 다수의 한국적인 교량이 사라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교량이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현장답사가 용이하고, 여타의 시대와 비교하여 볼 때 교량의 수 또한 압도적으로 많고, 관련문헌 및 자료 또한 다수 존재한 점이 강점이었다. 홍광표 등(2001: 머리말) 역시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의 조경에서 한국 고유의 문화를 제대로 표현한 것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철학·종교가 내재되어 있는 작품 또한 드물다고 밝혔다.

#### 2. 연구대상 선정

조선시대 교량의 문화경관 해석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폈는데, '물리적, 경험적, 의미적' 측면이 그것이다. 조선시대 교량의 물리적 특징 해석은 조선시대의 수경에 놓인 99개 교량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조선시대에 최초로 가설되었고, 조선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되었으며, 예술적으로도 전승 가치가 있고, 보존상태 또한 양호한 특징을 지녔다. 여기에는 보물로 지정된 교량 6개, 사적 2개, 지방유형문화재 13개가 포함되었으며, 과거에는 수경에 놓였지만, 현재는 이전되어 물이 흐르지 않는 교량을 포함하였다.

조선시대 교량의 경험적, 의미적 특징 해석 가운데,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교량관련 기록의 해석을 위해서는 조선시대의 수경에 놓인 99개 교량 가운데 10개 교량을 대표적으로 선정하였으며, 교량명을 통한 의경 표현방법 해석을 위해서는 조선시대



그림 1. 연구대상 교량의 위치

의 수경에 놓인 교량 99개 가운데 교량명이 존재하는 60개의 교량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외에 가설시기와 현존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다수의 교량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조선시대의 회화와 한시, 전설, 신화, 민담, 속담 가운데 존재했다.

#### 3. 연구방법

문화경관으로 본 조선시대 교량의 특징 연구는 문화경관의 개념적 속성을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분석결과 문화경관은 물리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으로 크게 구분되었으며, 인간의 언어·종교·민속·예술 등의 형태로 정신적 측면이 가시화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문화경관 연구의 구성요소는 '물리적 측면, 인간의 활동, 정신적 측면'으로 요약되었다. 여기에 교량의 사전적 개념, 동·서양 옛 교량의 역할과 특징, 한국전통교량연구의 내용을 접목하여 교량의 문화경관 구성요소를 살폈는데, '물리적 측면, 인간의 활동과 체험, 정신적 측면'으로 정리되었다. 이어서 조선시대의 수경에 놓인 교량의 특징을 대입하여 조선시대 교량의 문화경관 해석의 틀을 도출했는데, '물리적·경험적·의미적 측면'으로 세분화 되었다.

물리적 특징 연구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교량 99개를 중심으로 관련문헌을 조사하고, 문화재담당자 및 관계자, 승려, 교수 등의 자문을 구하였으며, 현장답사를 수행하였다. 현장답사에서

는 육안관찰,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현장실험을 행하였으며, 기존 문헌연구, 교량실측도면, 선행연구 자료를 참고하였다. 경험적 특징 연구는 조선시대의 문자자료와 시각자료를 통해 알아보았는데, 전자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민속놀이·민속신앙에 전해 내려오는 자료를, 후자는 조선시대의 회화 가운데 교량과 사람과의 관계가 나타난 작품과 교량을 매개로 한 민속놀이와 민속신앙 관련 사진과 모형을 참고하였다. 의미적 특징 연구는 황기원 등(1989: 105-106)가 특정 공간(한국전통정원)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언급한 이름짓기, 글짓기, 상징화 표현기법 가운데, 이름짓기와 글짓기 방법을 적용했는데, 교량명, 조선의 한시, 전설·신화·민담·속담 속에서 교량의 의미를 살폈다.

## IV. 결과 및 고찰

### 1. 조선시대 교량의 물리적 특징

조선시대 교량의 물리적 특징은 '교량의 형태와 색채, 교량과 주변경관과의 관계, 교량의 의장에 나타난 조형적인 상징 표현'으로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조선시대의 교량은 웅장하며 장식과 기교가 많은 서양 혹은 중국의 교량과는 달리, 중·소규모의 간결하며 명쾌한 구조미가 강조되었고, 과학적·실용적이었으며 동시에 조형적이었다. 그리고 교량에서의 조망과 머무름을 위한 형태적 특징을 갖추었다. 또한 당 시대의 문화·관습·사상이 교량의 형태에 반영되었으며, 자연재료의 자연스러운 가공과 친자연적인 경관 조성이 특징적이었다. 조선시대 교량의 색채는 자연의 재료에서 원료를 추출하였다. 석재의 경우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목재는 천연 목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자연에서 원료를 채취한 단청색을 표면에 칠하였다. 그리고 누교와 행각교의 기와는 토사에 열을 가하여 굽는 방법을 통해 색을 만들었다. 교량과 주변 경관과의 관계는 자연환경과 문화경관의 공생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교량의 주변에는 항시 자연의 요소가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는 건조물이 차폐 및 초점경관을 형성하거나 혹은 위요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었다. 조선시대의 교량은 주변경관과 구별되어 홀로 강조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게다가 일부러 교량의 존재를 강조하기 위해 주변 경관을 정리하는 경우 또한 없었다. 수경은 사상으로 조영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지당과 수로에 놓인 교량의 형태와 의미에도 영향을 주었다. 교량에 나타난 의장은 동물·식물·자연·초자연 형태를 통해, 인간의 무사안녕에 대한 바람과 초자연세계로의 염원, 자연의 아름다움 등을 표현하였다.

### 2. 조선시대 교량의 경험적 특징

조선시대 교량의 경험적 특징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교

량의 용도와 쓰임새, 교량을 매개로 한 민속놀이와 민속신앙에 나타난 의식, 조선의 회화에 나타난 교량에서의 활동과 체험'으로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교량 위 혹은 교량 근처에서는 임금, 신하, 백성 등 다양한 신분の人들과 전국의 남녀노소가 만나고 헤어졌다. 궁궐과 도성의 교량에서는 제례, 어가행렬, 준천의식 등의 다양한 행사와 의식이 거행 되었으며, 마을의 교량은 주변의 경관 현황과 활동인식을 위한 기준점으로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들 교량은 당 시대의 정치와 문화활동의 반영으로 표현되었다. 민속놀이와 민속신앙의 식 가운데 교량은 두 가지 유형의 쓰임을 나타냈는데, 하나는 놀이와 축제의 장소였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앙 활동의 대상이었다. 조선시대 회화에 나타난 교량은 이동의 수단, 만남과 헤어짐의 장소, 축제와 행사의 장, 풍류를 즐긴 곳으로 쓰였다.

### 3. 조선시대 교량의 의미적 특징

조선시대 교량의 의미적 특징은 '교량명에 내재된 의경 표현 방법, 조선의 한시에 나타난 교량의 상징적인 의미, 전설·신화·민담·속담 속 교량의 존재양상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조선시대의 교량명에는 교량의 위치, 형식, 형태, 재료 등 물리적인 특징과 교량가설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교량과 교량이 놓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아름다움이 표현되었으며, 시대의 사상과 사람들의 염원을 반영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의 한시 속 교량은 성과 속, 이승과 저승의 연결과 단절, 새로운 세계로의 관문을 상징했으며, 평화·아름다움·풍류·기쁨·의지·신념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 혹은 쓸쓸함·어두움·우수·아쉬움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의 표상으로도 표현되었다. 전설·신화·민담·속담 속 교량은 만남과 사랑의 상징으로 가장 빈번하게 쓰였는데, 이별·원한·재앙·의심·위태로움·위험·어려움·더러움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와 영속·초월의 상징으로도 언급되었다.

## V. 결론

조선시대 교량의 문화경관 해석은 '연결, 교감, 상징'의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되었다.

**연결(連結, Connection):** 조선의 교량에서는 다양한 형태, 현상, 의미의 연결이 있었다. 즉, 한 지점과 다른 지점, 교량과 주변환경, 양측 지역의 문화, 자연과 문화, 교량과 인간, 인간과 인간, 개인과 집단, 현세와 이상세계가 교량을 통해 연결되었다. 그러나 교량의 연결성은 그 이면에 이별, 송별, 단절, 관문의 의미를 내포하였다. 조선시대 교량의 형태는 단순하고 명쾌하며 조형적이었다. 교량은 교각, 교면과 같은 구조부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인공적인 가공을 최소화 한 자연의 재료(석재와 목

재)를 사용하였다. 이는 교량이 자연과 사람, 혹은 자연과 문화를 이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의 교량은 홀로 강조되기 보다는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였다. 교량의 의장은 지역의 문화, 개인과 집단의 염원, 현세와 이상세계를 연결시켰다. 조선왕조실록, 민속놀이와 민속신앙의식, 조선의 회화에 나타난 교량은 위에서 언급한 교량의 의장에 나타난 세 가지 연결성 외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켰다. 교량명, 조선의 한시, 전설·신화·민담·속담 속에 나타난 교량은 교량과 교량, 교량과 특정 대상, 교량과 교량이 놓인 장소, 교량을 통한 인간의 감정과 염원의 연결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 및 추상적인 이미지를 연결시켰다.

**교감(交感, Communion):** 조선시대의 교량에서는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통한 교감이 이루어졌다. 교량 위 혹은 교량 인접 공간에서는 왕, 신하, 백성과 같은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과 전국의 남녀노소가 만나고 헤어졌다. 그리고 지인 혹은 벗이 서로 교류하는 장소로도 언급되었다. 조선의 교량에서는 제례, 왕의 행차, 준천의식, 계회 등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행사와 의식이 거행되었다. 놀이와 축제의 장, 풍류를 즐긴 곳으로도 교량이 이용되었는데, 정월대보름에 전국에서 펼쳐진 달교놀이가 대표적이었다. 이 밖에 다리농기놀이, 다리축제, 다리굿놀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협동이 이루어졌다. 교량 옆 공터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었다. 조선의 교량은 교량명, 교량의 위치 혹은 의미를 통해 교량이 놓인 지역의 현황과 활동을 인식할 수 있었다. 특정 교량을 언급함으로써 사람들은 지역의 지도를 그릴 수 있었고, 따라서 대화의 소통이 가능했다. 또한 교량은 집단의 문화와 정치의 반영물로도 언급되었는데, 선조들의 삶이 반영된 정체성 있는 장소였으며, 공공의 공간이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교량을 통해 인간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조선의 교량이 자연경관 가운데 놓였으며, 자연의 재료를 최소한의 가공을 통해 축조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수경에 놓여서 교량에서의 오감 체험이 가능했다.

**상징(象徴, Symbol):** 조선시대의 교량은 존재의 이유에서부터 교량 및 교량인접 공간에 표현된 상징 조형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징이 나타났다. 조선시대 교량의 교량명에는 지역의 경관, 역사적인 유래와 사건, 현세와 불교·도교·사후세계의 식별 및 통로, 성스러운 곳으로의 진입로, 사람들의 염원 등의 상징이 담겨 있었다. 조선시대의 한시와 전설·신화·민담·속담에서의 교량은 연결·단절·관문, 이름답고 기쁘며 풍류가 있는 곳, 인간의 능력과 신념, 만남과 사랑, 영속성, 초월성의 상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별·원한·재앙·위태로움·위험·아쉬움 등의 어두운 이미지도도 교량이 언급되었다. 특히 교량의 하부 공간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였다. 교량과 주변 경관과의 관계 해석 가운데, 수경의 형태와 교량경관과의 관계에서 지당과 수로의 교량에 담긴 의미는 이상세계로의 이동로, 도교·불교의 이상향 및 철학사상의 상징, 인간의 사상·명상·풍류·관조·집중 등과 관계된 이미지로 해석되었다. 교량의 상징 조형물에서는 동물·식물·자연·초자연 형태의 의장을 통해, 벽사·길상·열반·영생·이상향·생명·창조·번영·순결·아름다움·젊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전통공간 가운데, 궁궐·사찰·능과 고분에서 교량의 상징성이 가장 강조되었다. 교량을 통한 놀이와 축제, 신앙활동으로서의 교량은 건강·복·행복·행운·액막이·안정·이승과 저승의 연결·천도의 수단을 상징했다.

## 인용문헌

1. 황기원, 유병림, 박종화(1989) 朝鮮朝 庭園의 原型에 관한 研究. 서울: 서울대학교 環境大學院 附設 環境計劃研究所. p. 105, 106.
2. 황학주(1976). 韓國의 橋梁史에 關한 研究. 대한토목학회지 24(3): 93.
3. 홍광표, 이상윤(2001). 한국의 전통조경.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p. 머리말.
4. Norberg-Schulz, C.(1971).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New York: Praeger. p. 19.
5. Edward Relph(2005). 김현덕 외 2 역. Place and Placelessness(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p. 103, 104.